

스키니 진을 즐겨입는 여대생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 및 유연성 비교

배주한[‡]
구미대학교 물리치료과

Comparison of General Symptoms and Flexi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Who Like to Wear Skinny Jeans

Bae Juhan, PT, Ph.D[‡]
Dept. of Physical Therapy, Gum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symptoms and body flexibility according to physical change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who like to wear skinny jeans.

Methods : This study targeted 39 female college students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physical change and disease, and measured waist flexibility and hip joint working range.

Result : The study subjects showed much fatigue, subjective symptoms, and the highest varicose veins. As for comparison before and after waist flexibility measurement, the mean value of the waist flexibility was 17.97 before the experiment, and the mean value after the experiment was 17.63. Therefor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P<.5$).

Conclusion :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emale college students revealed fatigue, varicose veins, and numbness, as well as waist flexibility and hip joint limitations even with a little walk.

Key Words : skinny jeans, flexibility, highest varicose veins

[‡]교신저자 : 배주한 hanteam4@hanmail.net

I. 서론

청바지는 150여 년 동안 패션의 흐름 속에서 사라진 적 없는 패션 아이템으로, 각 시기의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연관 속에서 젊음·자유·반항의 상징, 성적 해방의 도구, 관능미의 표현 등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스키니 진의 모습으로 여성의 몸을 구속하는 신종 코르셋이 되었다. 최근의 날씬하고 긴 몸매를 추구하는 변화된 미적 기준에 의해 사람들의 의복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이다(임은혁, 2011).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및 여성들의 의복선택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사회에서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자신의 체형, 패션, 전반적인 외모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서 자신과 비교해서 차이가 적으면 안정감을 느끼며, 차이가 크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패션에서는 몸에 딱 맞게 입는 청바지로 입는 사람의 체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슬림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효과로 10~20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구속성 의복의 하나인 스키니 진은 2005년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착용되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스키니(skinny)란 단어의 유래는 ‘스킨(skin)’으로 피부처럼 몸에 딱 달라붙는다는 의미이며 스키니 진은 몸매가 드러나게 몸에 타이트하게 피트 되는 청바지이다(Yoon, 2007). 청소년들은 날씬함을 미의식의 기준으로 여기고 매우 다른 체형을 여자의 이상형으로 선호하며 남녀의 이상적인 신체상을 비교해볼 때 남자보다 여자의 신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선호한다(Lee, 2000).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스키니 진의 착용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 스키니 진을 3벌 이상을 소유한 경우가 60% 이상이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 착용하는 경우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키니 진은 4계절 내내 착용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고 하였다(권수애 등, 2010).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때와 장소, 목적에 관계없이 즐겨 입는 대중적인

의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형태 또한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밑위길이가 짧고 바지폭이 좁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송영은과 추미선, 2009). 스키니 진의 경우 착용 시 몸매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시각적 효과와 유행성이 함께 작용하여 젊은 여성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최진과 도월희, 2007).

최근 균형 잡힌 아름다운 비율의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타이트한 옷을 선호하고 있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나치게 몸을 조이는 옷이 건강을 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인체에 여유분이 없는 청바지와 같은 슬랙스 착용 시, 하지부가 받는 구속압은 근육피로와 혈류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시간 착용 시 인체에 구속을 가해 근육의 피로 증가와 순환장애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Shim & Choi, 1994).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유해 화학물질을 내뿜고, 통풍과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피부마찰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해 인체에 유해함을 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구속성 의복은 몸매보정과 더불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입기 시작하였지만 유행성과 심미성(審美性) 등을 따르다 보니 인체를 지나치게 압박하여 생활 활동에 지장을 주고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다.

신체를 압박하는 의복의 종류를 ‘구속성 의복’ 혹은 ‘압박의류’라고도 하며 여성의 브라지어, 거들 등의 화운데이션류의 체형보정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 중에서도 신체를 압박하는 의복이 이에 속한다(Shim & Choi, 1994). 몸에 꼭 맞는 청바지는 대부분 다소 두껍고 신축성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동작을 제한할 수 있어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선호되고 있는 몸에 꼭 맞는 형태의 청바지는 신체를 구속하여 착용감을 나쁘게 할 뿐 아니라 근육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송영은과 추미선, 2009). 인체에 여유분이 없는 청바지와 같은 슬랙스 착용 시, 하지부가 받는 구속압은 근육피로와 혈류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시간 착용 시 인체에 구속을 가해 근육의 피로 증가와 순환장애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Shim & Choi, 1994). 스키니 진은 의복에 여유분이 거의 없어 혈액순환 장애와 하복부에 압력을 가해 소화불량, 변비,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야기해 여성의 건강에 장애가 될 수 있다(Na & Lee, 2010).

의복압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인체 압박에 따른 감각은 둔화 되지만 근육의 활동에는 많은 부담을 주어(심부자와 최선희, 1993)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고 호흡과 맥박에 영향을 미치며(정명선과 류덕환, 2002), 나아가서 내장기능의 이상까지 초래하거나 인체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스키니 진을 입음으로써 미치는 증상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몸의 유연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구속성 의복으로 인하여 인체의 불편함과 의복 착용 시 건강유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안으로 스키니 진을 즐겨 입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스키니 진의 착용 시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더불어 유연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본 연구에 앞서 바지를 즐겨 입는 여대생 대상으로 7일간(2016년 9월 22일~28일)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100명 대상으로 일주일 1일 이상 스키니 진을 입는 대상 중 39명만 설문지에 참여 하여 스키니 진 착용 시 불편함, 착용에 따른 질병 증상, 자각 증상 및 통증에 관한 신체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 항목은 스키니 진을 입음으로써 나타나는 불편함 5항목과 그에 따른 질병 10항목, 총 15항목으로 조사하였다.

2. 실험 대상자 선정

설문지 조사에 참여했던 G대학교 재학 중인 스키니 진을 즐겨 입는 연령 20~25세까지의 여대생 중 일주일에 3회 이상 착용하는 여대생과 평균 바지사이즈 27, 28인치 를 입는 여대생 39명을 대상으로 척추질환이 없는 학생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

실험대상자들은 스키니 진을 입기 전에 허리의 유연성

및 엉덩관절 굽힘, 폼, 벌림의 관절가동범위를 먼저 측정 한 후, 일주일에 3번 이상 4주간(2016년 10월3일 ~ 2016년 10월28일) 스키니 진을 입고 나서 다시 유연성 및 엉덩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유연성 측정방법은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 대상자는 선 자세에서 검사자가 등뼈 열두 번째 높이와 위뒤엉덩뼈가시(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를 찾아 측정 후 두 개의 위뒤엉덩뼈가시를 선을 그은 후 등뼈 열두 번째 높이에서 직각이 되도록 선을 긋는다. 대상자는 허리를 굽혀 신장된 등뼈 열두번째와 위뒤엉덩뼈가시를 줄자로 길이를 재는 방법이다. 엉덩관절 가동범위는 전자각도계(DetaLog, Biometrics사, England)를 이용하여 엉덩관절 굽힘, 폼, 벌림 세 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 된 자료는 분석 목적에 맞추어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자각증상 및 통증은 빈도분석, 질병의 신체적 변화는 기술통계, 유연성 전·후는 상체비교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의 유의성은 .05수준으로 나타내었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39명 중 연령으로는 20~21세 33명, 22~25세 6명이었다. 바지사이즈 27이 30명, 28이 9명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39)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연령	20~21	33	84.6
	22~25	6	15.4
사이즈	27	30	77.0
	28	9	23.0

2. 스키니 진 착용에 따른 불편함 및 질병증상

연구대상자의 스키니 진 착용 시 따른 불편함으로 조금만 걸어도 피로가 3.2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행 시 부자연스러움이 3.05점, 장시간 앉아 있으면 불편

함이 2.79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스키니 진 착용 시 따른 질병으로 하지정맥류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불면증이 3.95점, 생리불순이 3.79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스키니 진 착용에 따른 불편함, 질병증상

	구분	평균±표준편차	순위
불편함	조금만 걸어도 피로	3.23±0.87	1
	보행 시 부자연스러움	3.05±1.02	2
	장시간 앉아 있으면	2.79±0.95	3
	다리동작에 불편함	2.69±0.92	4
	착탈 시 불편함	2.51±0.91	5
질병증상	하지정맥류	3.97±1.09	1
	불면증	3.95±1.05	2
	생리불순	3.79±1.06	3
	부종	3.74±1.07	4
	대퇴감각증	3.64±1.24	5
	변비	3.44±1.14	6
	가려움증	3.45±1.14	7
	소화불량	3.36±1.09	8

3. 스키니 진 착용에 따른 자각증상 및 통증

연구대상자의 스키니 진 착용 시 따른 자각증상으로 저

림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증상이 1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증이 있다가 25명이고, 통증이 없다가 14명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스키니 진 착용 시 따른 자각증상, 통증

(N: 39)

	구분	실수(명)	백분율(%)
자각증상	감각이상	3	7.7
	발진	0	0
	혈관 튀어나옴	1	2.6
	저림	22	56.4
	따끔거림	0	0
	기타	13	33.3
	합계	39	100.0
통증	있다	25	64.1
	없다	14	35.9
	합계	39	100.0

4. 유연성 측정 전·후 비교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유연성 측정 전·후 설명에 대한 비

교는 유연성 실험전의 측정값의 평균은 17.97이었고, 실험 후의 측정값의 평균은 17.63으로 유연성 전과 후의 차이는 0.42으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표 4. 유연성 측정 전·후 비교

(단위: °)

구분	평균	차이	t	p
허리유연성 실험 전	17.97±2.25	0.34	0.69	0.4*
허리유연성 실험 후	17.63±2.45			

*p<.05

5. 엉덩관절 폼 오른쪽·왼쪽 비교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엉덩관절 폼의 오른쪽과 왼쪽을 측정하 값으로 설명에 대한 비교는 엉덩관절 폼 실험 전

의 측정값의 평균은 오른쪽 24.69, 왼쪽 24.13이었고, 실험 후의 측정값의 평균은 오른쪽 21.56, 왼쪽 18.38로 엉덩관절 오른쪽 폼의 실험 전·후와 왼쪽 폼 전·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표 5. 엉덩관절 폼 오른쪽·왼쪽 비교

(단위: °)

구분	평균	차이	t	p
엉덩관절 오른쪽 폼 실험 전	24.69±7.85	3.13	1.5	0.16*
엉덩관절 오른쪽 폼 실험 후	21.56±6.76			
엉덩관절 왼쪽 폼 실험 전	24.13±6.29	4.75	2.06	0.05*
엉덩관절 왼쪽 폼 실험 후	18.38±6.86			

*p<.05

6. 엉덩관절 굽힘 오른쪽·왼쪽 비교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엉덩관절 굽힘의 오른쪽과 왼쪽을 측정하 값으로 설명에 대한 비교는 엉덩관절 굽힘 실험

전의 측정값의 평균은 오른쪽 109.38, 왼쪽 102.81 이었고, 실험 후의 측정값의 평균은 오른쪽 110.63, 왼쪽 104.06로 엉덩관절 오른쪽 굽힘의 실험 전·후와 왼쪽 굽힘 전·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표 6. 엉덩관절 굽힘 오른쪽·왼쪽 비교

(단위: °)

구분	평균	차이	t	p
엉덩관절 오른쪽 굽힘 실험 전	109.38±14.8	6.56	1.75	0.1*
엉덩관절 오른쪽 굽힘 실험 후	102.81±11.3			
엉덩관절 왼쪽 굽힘 실험 전	110.63±7.72	6.56	2.68	0.02*
엉덩관절 왼쪽 굽힘 실험 후	104.06±12.06			

*p<.05

7. 엉덩관절 벌림 오른쪽왼쪽 비교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엉덩관절 벌림의 오른쪽과 왼쪽을 측정된 값으로 설명에 대한 비교는 엉덩관절 벌림 실험

전의 측정값의 평균은 오른쪽 33.75, 왼쪽 29.38 이었고, 실험 후의 측정값의 평균은 오른쪽 23.44, 왼쪽 23.75로 엉덩관절 오른쪽 벌림의 실험 전·후와 왼쪽 벌림 전·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7).

표 7. 엉덩관절 벌림 오른쪽왼쪽 비교

(단위: °)

구분	평균	차이	t	유의확률
엉덩관절 오른쪽 벌림 실험 전	33.75±8.85	10.31	3.64	0.00*
엉덩관절 오른쪽 벌림 실험 후	23.44±5.07			
엉덩관절 왼쪽 벌림 실험 전	29.38±8.14	5.63	2.06	0.05*
엉덩관절 왼쪽 벌림 실험 후	23.75±5.00			

*p<.05

IV. 고 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때와 장소, 목적에 관계없이 즐겨 입는 대중적인 의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형태 또한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밑 위 길이가 짧고 바지폭이 좁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송영은과 추미선, 2009).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스키니 진의 착용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 스키니 진을 3벌 이상을 소유한 경우가 60 % 이상이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 착용하는 경우가 90 %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키니 진은 4계절 내내 착용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고 하였다(권수애 등, 2010).

피부에 맞는 의복을 입으므로 해서 몸매에 추구하는 변화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2014)는 지나치게 몸을 조이는 옷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딱 끼는 청바지는 넓다리감각이상증(meralgia paresthetica)이라 불리는 일시적인 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는 측면부의 넓다리 피부신경(femoral cutaneous)을 차단하여 마비를 일으키거나 허벅지가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구속감의 원인이 되는 의복압으로 인해 근육피로와 혈류순환 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다(임은혜, 2011).

기본 의복압의 수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고 된

여성의 보정 속옷의 경우 착용을 하고 동작을 행할 때 신체는 신축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 착용한 속옷이 피부변형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면 신체는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러한 압박은 골격, 내장 등의 물리적 변형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 소화기능 등의 생리적 장애를 초래하고 불쾌감, 피로감 등의 심리적 장애도 발생 시킨다(정정림과 김희은, 2006).

인체에 여유분이 없는 청바지와 같은 슬랙스 착용 시, 하지부가 받는 구속압은 근육피로와 혈류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시간 착용 시 인체에 구속을 가해 근육의 피로 증가와 순환장애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Shim & Choi, 1994).

본 연구에서도 스키니 진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 분석으로 다음 결과, 보행 시 조금만 걸어도 피로함과 부자연스러움이 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자각증상으로는 따끔거림, 발진, 저림, 감각이상,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따끔거림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없었으며,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저림 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스키니 진은 의복의 여유분이 없어 착용 시 몸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혈액순환 장애와 하복부 장기에 압력을 가해 소화불량, 변비 또는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야기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부자와 최선희(1993)는 구속감의 원인이 되는 의복압은 지나치게 되면 근육활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혈류량을 점차 감소시켜 근육피로와 혈류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Shim과 Choi(1994)는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꼭 죄는 청바지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는 증상을 호소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허벅지 신경을 자극하여 허벅지가 따끔거리는 증후군(tingling thigh syndrome)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구속감의 원인이 되는 의복압은 지나치게 되면 근육활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혈류량을 점차 감소시켜 근육피로와 혈류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키니 진을 즐겨 입는 학생들이지만 앉아있는 시간과 활동량이 적은관계로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면증, 생리불순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꼭 끼인 청바지가 피부 및 근육 압박으로 혈액순환으로 인한 하지정맥류와 생리불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것은 접합 부분에서 일어나는 운동범위이며 특히 빠른 부분에서 굴곡부까지를 말한다. 유연성의 정도는 근육이 스트레치 인대 길이 그리고 접합부분의 골형과 같은 사항들 간의 상호 작용이다(남덕현과 강명학, 2003).

척추 관절가동범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측정 방법이다(Pearcy & Tibrewal, 1984). 임상에서 측정방법으로는 관절각도계(Fitzgerald 등, 1983), 유연곡선자(Youdas 등, 1995), 피부신장법(Williama 등, 1993), 이중경사각도계(Mayer & Gatchel, 198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 측정 전후 비교 결과 허리 유연성 실험 전의 측정값의 평균은 17.97이었고, 실험 후의 측정값의 평균은 17.63으로 유연성 전과 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엉덩관절 펴의 오른쪽과 왼쪽을 측정한 값으로 오른쪽 실험 전 24.69, 오른쪽 실험 후 21.53 측정값으로 평균의 유의한 차이는 있었다. 왼쪽 실험 전 24.13, 왼쪽 실험 후 18.38 측정값으로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엉덩관절 굽힘의 오른쪽 실험 전 109.38과 오른쪽 실험 후 102.81 측정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왼쪽 실험 전 110.63과 왼쪽 실험 후 104.0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엉덩관절 오른쪽, 왼쪽 벌림 실험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연성은 신체 건강의 중요한 구성인자이고 이것이 감소되면 일상생활활동이 감소되거나 유지되기 힘들어진다. 올바른 자세유지와 개선이 적절하고 편안한 복장을 입는 것이 일상생활이나 활동수행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척추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패션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의 실용성, 유행추구, 활동성을 추구하여 외모관련행동에 건강에 대한 추가하여 살펴보았을 때 유연성 이외의 보행과 관련된 연구, 건강관심도 및 의복의 편안함을 통해서 건강행동의 차이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조합해 볼 때 스키니 진의 착용이 여대생의 하지정맥류 및 불면증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신체의 관절 유연성 제한이 있음을 보여준 것은 젊은 여성들의 즐겨 입는 스키니 진은 활동성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해 젊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날씬하고 긴 몸매를 추구하는 변화된 미적 기준의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스키니 진 착용을 통하여 신체적 불편함과 병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스키니 진을 즐겨 입는 것을 지양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는 스키니 진을 즐겨 입는 여대생 1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 신체적 변화와 그에 따른 일반적 증상이 나타나는 3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4주(2016년 10월3일 ~ 2016년 10월28일) 까지 일주일에 3번 이상 스키니 진을 입고 나서 다시 유연성 및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1. 스키니 진 착용에 따른 불편함으로써는 조금만 걸어도 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스키니 진 착용에 따른 질병으로써는 하지정맥류가 가장 높았고, 불면증, 생리불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스키니 진 착용에 따른 자각증상으로는 저림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4. 유연성 측정 전후 설명에 대한 비교는 유연성 실험

전의 측정값의 평균은 17.97이었고, 실험 후의 측정값의 평균은 17.6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오른쪽 엉덩관절과 왼쪽 엉덩관절에서 폼, 굽힘, 벌림 전 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스키니 진 착용으로 조금 걸어도 피로감과 하지정맥류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났으며, 객관적 신뢰성 높은 측정의 자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허리 유연성과 엉덩관절에 관절가동범위도 제한이 나타남으로써 후속 연구로써는 압박수준에 따른 질병과 기능소재에 따른 비교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 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권수애, 손부현, 박소은(2010). 여대생의 스키니 진 착용 현황과 개선요구도. 생화학연구논총, 14(2), 111-121.

남덕현, 강명학(2003). 체육측정평가. 서울, 대한미디어.

심부자, 최선희(1993). 의복의 구속성에 관한 연구(III) 화운데이션의 의복압과 근활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를학회지, 17(2), 197-206.

송영은, 추미선(2009). 청바지의 패턴이 보행 시 하지 근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6), 911-917.

임은혜(2011). 패션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외면화된 코르셋으로서의 스키니 진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5(10), 1215-1227.

정명선, 류덕환(2002). 화운데이션 소재의 역학적 특성이 의복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1(1), 79-93.

정정림, 김희은. (2006). 파운데이션 착용으로 인한 의복압과 주관적 감각의 비교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31-1537.

최진, 도월희(2007). 부츠 컷(Boots-cut) 청바지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 : 20~30대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2(2), 271-283.

한국건강관리협회(2014). 건강 120세를 위한 한국건강관리

협회 건강증진활동, 발간자료집.

Fitzgerald GK, Wynvenn KJ, Rheault W, et al(1983). Objective assessment with established normal values for the lumbar spine range of motion. Phys Ther, 63(11), 1776-1781.

Lee IS(2010). Keeping a healthy body in your youth until eighty years old: Don't make your body tight. Korean Assoc Health Promotion, 34(6), 12-13.

Lee, M(2000). The effect of TV media on body images, clothing behaviors and star-entertainer imitation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Mayer TG, Gatchel RJ(1988). Functional restoration for spinal disorders: The sports medicine approach. Philadelphia, Lea & Febiger, pp.124-138.

Na YJ, Lee DW(2010). Clothing pressure sensation and discomfort experience of skinny jean. Korean J Human Ecol, 19(4), 655-665.

Pearcy MJ, Tibrewal SB(1984). Axial rotation and lateral bending in normal lumbar spine measured by three dimensional radiography. Spine, 9(6), 582-587.

Shim BJ, Choi SH(1994). Studies on garment restraint (IV): Effect of slacks restraint on lower extremity. J Korean Soc Clothing Textiles, 18(3), 387-394.

Williams R, Binkley J, Bloch R, et al(1993). Reliability of the modified - modified Schober and double inclinometer methods for measuring lumbar flexion and extension. Phys Ther, 73(1), 33-44.

Youdas JW, Suman VJ, Garrett TR(1995). Realiabilit of measurements of lumbar spine sagittal mobility obtained with the flexible curve. J Orthop Sports Phys Ther, 21(1), 13-20.

Yoon J(2007). Female college students' jean pants style: with a focus on skinny jea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9(1), 189-201.